



신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복음화 소명”	“연중 제 29 주일 (다해)”	2007년 10월 21일
복음 묵상:	마태 28,16-20	이사 2,1-5	로마 10,9-18

오늘은 전교주일이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선포이다. 복음선포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 되어 하느님 안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이룩하기로 결심하는 날이다. 더욱이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갖고 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 온 민족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을 기원하는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다

선교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우리와 같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본분과 책임, 의무를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는 그것이 더 필요한 때이다. 특히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복음화의 소명을 새롭게 하도록 하자.

([수원] 조옥현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 성탄절이 9 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21일부터 성탄 준비를 위한 첫번째 연습시간을 가지고저 하고저 하오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연습은 1시 30분까지만 합니다.
- 금주 미사후 금년 성탄 미사곡의 첫연습이 있겠습니다.
- 유 비오 지휘자님과 유 요안나 자매님께서 성지 순례(10/15-26)를 떠났습니다. 성지 순례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 주님과 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임시 지휘는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조 율리안나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이 대원 요한 형제님 심한 편두통 증세로 스텐포드 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고 지금은 맥에서 회복중에 있습니다. 건강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복음 마태 28,16-20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번 전교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온 백성, 곧 목자와 신부,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 교회의 선교 활동이 지니는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번 전교주일을 위하여 선택한 주제는 “온 세상을 위한 모든 교회”입니다. 이는 모든 대륙의 지역 교회가 우리 시대의 점증하는 심각한 도전들 앞에서 선교 활동에 새롭게 나서야 할 시급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오랜 전통’의 교회들은 과거에 선교를 위해 물질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제, 남녀 수도자, 평신도들을 꾸준히 보냄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들 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교 지역의 신생 교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파견한 교회에서도 풍성한 사도적 결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세속화를 직면하여, 또 가정의 위기와 성소자 감소, 성직자 고령화 등의 현상들을 보고, 교회는 자신 안에 갇혀 그들의 선교 노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복음이 전파된 교회 공동체들도 많은 어려움과 장애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에게는 사제들과 봉헌된 이들이 풍부한데, 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그 지역의 많은 필요에도 다른 곳에서, 심지어는 오래 전에 복음화된 곳에서 사목 직무와 사도직 봉사를 수행하도록 보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의 교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교 임무는 교회가 오늘날 인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첫째 가는 임무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문화와 사회와 윤리의 변화를 지도하고 복음화하며, 전 세계 각지에서 가난과 폭력, 또 체계적인 인권 유린으로 모욕과 억압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본래 선교적이고, 바로 그 토대는 주님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의 척도인 복음화의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선교는 더 이상 단순히 복음화 활동에 협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고 공동 책임자로 인식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 책임 의식과 더불어 공동체들 간의 친교가 성숙되고 오늘날 복음화에 필요한 수단들의 활용뿐만 아니라 인력(신부와 남녀 수도자와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선교 명령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전교주일을 통해 선교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도모하고, 우리 시대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교회 간 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선교사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적 여정과 교육 여정을 함께 일구어 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 활동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 목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는 부름이 모든 공동체 안에 울려 퍼져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언제나 기꺼이 선교 활동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호소합니다. 또한 저는 병마와 싸우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씀드리며 구원 활동에 대한 그들의 신비롭고 없어서는 안 될 협력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봉헌된 이들, 특히 봉쇄 수도자들이 선교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모든 신자의 노력 덕분에 복음화를 위한 기도와 지지의 영적 유대가 온 교회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초대 교회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신 동정 마리아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사랑의 성령 강림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삶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증언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화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다양한 자격으로 복음 선포에 헌신하는 모든 이를 날마다 기도 안에서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로서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냅니다.